



박정찬 사장 연임 저지 주총 총력 투쟁으로!

연합뉴스 노조가 21일 연합뉴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주총 총력 투쟁을 벌인다.

주총 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박정찬 사장 임명이 의결된다. 박 사장 연임을 저지할 공식적인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주총에서의 '막판 뒤집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며 오늘 우리 회사의 주주사에 박 사장 연임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주총 당일엔 국내 전 조합원이 모이는 총집결 투쟁을 진행한다.

현재 우리 회사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분이 30.77%로 최대주주이고, KBS(27.77%)와 MBC(22.30%)가 주요 주주다. 또 서울·동아·경향·조선·중앙·한국일보(각 1.54%)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방지 등이 우리 회사의 주주로 돼있다.

오늘 본사 조합원은 집행부와 5개조로 나뉘어 각 담당 주주사를 방문한다. 구체적인 조별 구성과 방문처는 다음과 같다.

- ▲뉴스통신진흥회(집행부)
- ▲KBS.MBC(1조 = 정치부.다국어뉴스부.한민족센터.고객지원팀.제작개발.통합뉴스국)
- ▲서울.매경(2조 = 문화.사진.국제뉴스.뉴미디어.월간)
- ▲조선.동아(3조 = 경제.사회.영문뉴스.IT개발.IT운영)
- ▲경향.중앙(4조 = 산업.북한.행정팀.전국부.영문경제.북한.정보사업.DB부.전략사업.마케팅)
- ▲한국.경향(5조 = 증권.미과.스포츠레저.보도국



파견.북한자료.피알기획서비스.대외업무.출판기획) 지방취재본부는 각 본부가 있는 곳의 주주사 위주로 방문한다.

- ▲광주일보.광주MBC(광주전남취재본부)
- ▲대전일보.대전MBC(대전충남취재본부)
- ▲경남신문.경남MBC(경남취재본부)
- ▲경인일보(경기취재본부)
- ▲충청일보.청주MBC(충북취재본부)
- ▲강원일보.춘천MBC(강원취재본부)
- ▲전북일보.전주MBC(전북취재본부)
- ▲제주일보.제주MBC(제주취재본부)
- ▲울산MBC(울산취재본부)

연합뉴스 노조는 이들 주주사를 찾아 박 사장 재임 3년간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법이 규정한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인사를 비롯한 각종 경영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주총 당일인 21일엔 지역본부를 포함한 조합원이 총집결한다.

오전 10시 본사 한빛광장에 국내의 전 조합원 한 자리에 모여 주총에 오는 주주사 관계자들에게 연임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11시엔 MBC, KBS, YTN 등 파업 중인 방송 3사가 우리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빛광장을 찾아 공동집회를 한다.

오후 2시에 주총 결과를 놓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번 주총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박 사장이 물러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앞서 파업 5일째인 19일 연합뉴스 조합원들은 오전 10시30분 본사 건물 8층에 모여 피켓 제작과 투쟁 구호 경연대회를 열었다.

부별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조합원 120여명은 이번 파업 기간 사용할 피켓을 손수 만들고 조합원들 앞에서 발표했다.

<총파업지침3호>

-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 가운데 단체협약상 필수인력(정보통신국 일부)을 제외하고 전원 파업대오에 합류한다.
- 전 조합원은 3월21일 주총투쟁을 비롯한 모든 조합 행사에 참여한다. 단, 지역본부와 특파원은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지역의 경우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을 받으면 전원 본사 투쟁에 결함한다.

조합원들이 기안한 구호엔 부별 특성이 엇보이기도 했다. 북한부의 한 조합원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연임폭탄, 제거하라 PJC 폭탄, 구하라 연합뉴스'를, 사회부는 '박사장은 DDK, 공정보도 DPS', 국제국 해외파트에선 '고함 박정찬, 세이브 저널리즘'을 내놓았다.

보도국의 한 조합원은 '박사장은 연임하지 마~보이~'란 구호를 외치고 개그 프로그램인 '껌기도'의 '마보이춤'을 춰 웃음을 자아냈다.

'평소못한 가족사랑 파업으로 챙겨보자'(사진부), '못살겠다 갈아보자, 꺼진불도 다시보자'(정치부), '거수기는 이제그만, 주총에서 심판하자'(스포츠레저부), '없다 없다 염치없다, 이런 사람 처음 봤네'(산업부) 등도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후 2시에 한빛 광장에서 연임 저지를 위한 조합원 집회를 열었다. 집회장으로 뒤늦게 온 조합원들이 있어 집회 참여 인원은 150여명으로 불었다.

이날 집회에선 2010년 입사한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댄스그룹 '용감한 사원들'의 데뷔 무대가 펼쳐졌다. 용감한 사원들은 박미경의 히트곡 '이브의 경고'를 개사한 '사원의 경고'에 맞춰 '파업 체조'를 선보였다.

집회 후 조합원들은 7층 임원실에서 '입실 투쟁'을 벌인 후 해산했다.

파업투쟁에 이런 일도

'용감한 사원들' 파업 체조 인기 폭발

0...19일 집회에서는 2010년 입사한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댄스그룹 '용감한 사원들'의 깜찍한 '파업 체조'가 집회 열기를 후끈 달궜다.

김혜영·황정현·배상희·이민지·김연숙 조합원들은 1995년 발표

된 박미경의 히트곡 '이브의 경고'를 개사한 '사원의 경고'에 맞춰 박정찬 사장의 '염치'를 되찾아주기 위한 울동을 선보였다.

최고 등급의 '깔맞춤'을 뽑낸 검은색 훈련복과 선글라스는 앞으로 이들이 집회의 단골스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모여 가사를 바꿔 노래를 만들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는 후문.

추운 날씨에도 한빛광장을 가득 채운 조합원들은 '용감한 사원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귀엽다', '잘한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연합뉴스에 '기수'가 사라졌다

0...이날 집회와 임원실 농성에서 있었던 조합원들의 발언에서 '기수'가 사라졌다.

사원 게시판에서 한 조합원의 지적에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언에 나선 조합원들은 예전처럼 '○○기'가 아닌, '○○년에 입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기수 문화는 조합원간 동질감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공채가 아닌 조합원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온 것이 사실.

지금 지역취재본부는 투쟁중 전북취재본부, 전주MBC와 연대투쟁

연합뉴스와 MBC, 서로 다른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언론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함께 모인 노조원들이 외친 “공정보도 쟁취”라는 구호가 19일 전주MBC 로비를 가득 채웠다.

연합뉴스 전면파업 5일차인 이날 오전 10시 전북취재본부 조합원 6명은 한명도 빠짐없이 전주MBC 로비에 집결했다.

연가투쟁부터 앞장서온 전북본부 조합원들의 뜨거운 투쟁 열기에 파업 8일차에 접어든 전주MBC 조합원들도 힘을 보탰다.

‘분노하라 연합뉴스’ 배너를 들고 모인 전북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전주MBC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MBC 조합원들은 연합뉴스 노

조 파업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평소에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더니, 연합이 이렇게 강하게 파업에 참여할 줄 몰랐다. 23년 만의 파업이 무색할 정도로 놀라운 단결력”이라며 응원했다.

“화 안내는 사람 화나면 더 무서워” 김한광 전국언론노조 전주MBC 지부장은 “연합뉴스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가 회복될 때까지 대오를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수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대의원도 “MB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박정찬 사장이 후배들의 정론직필을 가로막고 친정권 기사를 쓰도록 종용해 왔다”며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총

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펜을 내려놓았다”고 연대와 지지의사를 밝혔다.

평소에는 ‘동료’로 취재 현장에서 마주치던 타사 기자들도 이날은 ‘취재원’이 된 전북본부 조합원들에게 “연합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 누가 사건을 취재하겠느냐. 얼른 승리하고 돌아오라”라며 격려했다.

이날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진방 조합원은 “파업은 생채기를 내는 투쟁 방법이지만 딱지가 가라앉은

피부는 더욱 단단해진다”며 “선배들을 통해 파업 이후에도 갈등 없이 함께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본부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전주MBC, YTN전북본부, KBS 새노조 등과 함께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조합원 가족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제작하고 함께 산행을 가는 등 본부 차원에서 결속력을 다지는 행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파업투쟁...특파원 파업일지

※연합뉴스 특파원들도 국내 조합원의 파업 투쟁에 발맞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메신저 총회를 비롯한 특파원들의 투쟁 상황을 특파원들의 도움을 받아 투쟁속보에 실었습니다. 이번 일지는 멕시코 특파원 양정우 조합원이 정리했습니다.

“특파원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특파원들(이하 특들)도 노조 총파업과 함께 횃불을 들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30명 중 27명의 특들이 전면 총파업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진 못했지만 그간 마음속을 짓눌러왔던 ‘찌라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기자’로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특들은 파업 날을 기점으로 한국시

간 오후 11시, 야심한 밤에 야심찬 마음을 첫 메신저 총회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시간은 저마다 달랐지만 웹상에 모인 특들은 심지어(?) “가족 같은 기분이예요”라는 훈훈한 말까지 건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총회에선 우선 노조 집행부로부터 따끈따끈한 현장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특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박정찬 사장은 여전히 고집불통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움에 효과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을지 등 머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고민과 질문들을 털어냈습니다.

그간 홀로 고민하고 투쟁해야 했던 탓에 외로움이 컸던지 대화방은 쉼 없

이 올라오는 말들의 잔치에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특들은 총회에서 참여인원 모두가 행동을 통일하고, 보다 재미있고, 참신한 투쟁 아이디어와 전술로 현장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들이 매일 순번을 정해 직접 녹음한 연대사를 현장에 보내 집회에 동참키로 했습니다.

파업 전 뉴스Y에 지쳐버린 특들에게 새로운 재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파업투쟁속보에도 소식을 전하며 언제나 얼굴을 들이밀기로 했고요. 그외 UCC 참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참여할지 차후 논의가 더 있을 것입니다.

특들이 총파업 대오에 함께하기까지는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느꼈던 불안감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터라 의견을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굵땀던 모습은 파업을 결의한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도 줬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업전야에 전면 총파업으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고 역사적인 23년만의 파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계신 조합원 선후배들, 특들도 강고한 결의가 선 만큼, 옆자리에서 얼굴을 보진 못하더라도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굳건한 동지감으로 함께 갔으면 합니다.

특들의 메신저 총회는 한국시각으로 밤 10시에 진행되며 박정찬 사장 퇴진에 찬성하며 파업에 함께하는 모든 분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총회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노조나 특파원 아무에게나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파원 투쟁소식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투쟁”

☞ 1면에 이어

한 조합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연합뉴스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며 “물론 사장 연임 저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겠지만 이미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남권 트윈스’ 6년 만의 상봉
0...한빛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남권 트윈스’의 역사적인 상봉도 이뤄졌다.

함께 마이크를 잡은 정치부와 산업

부의 두 김남권 조합원은 후배 김남권 조합원이 입사한 이래 6년간 이어져 온 애매한 관계를 청산하는데 성공했다.

선배 김남권 조합원은 “둘이 닮았다는 말에 후배가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가. 허허”라고 운을 뚫고 후배는 “선배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이름이 같은 탓에 평소 이메일이 잘못 들어오는 일은 비밀비재 하거니와 60만원에 달하는 원고료가 잘못 입금

됐다가 3개월만에 주인을 되찾는 일도 있었다고.

선배 김남권 조합원은 상봉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문자에서 “어색했다”며 “도플갱어도 아닌데 항상 내 존재감을 빼앗아가는 남권이와 한 자리에 서다니. 하하”라고 소감을 전했다. ‘불러도 대답없는...’ 오큐파이 임원실

0...조합원 150여명은 16일에 이어 이날도 7층 임원실 ‘입실투쟁’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성기준·박노황 상무를 비롯한 임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붙잡고 ‘불러도 답이 없는’박사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회사를 위한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대다수 사원에게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임원실 진입 요구를 관철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매일 입실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장실 코앞에서 압박하기’를 계속할 예정이다.